

“천도교와 인격교육”에 대한 논평

이 원 호

(부산대학교)

노태구 교수는 위 주제논문 ‘천도교와 인격교육’에서 동학의 간단한 연혁과 한국사에 있어서 그것이 남긴 의의, 그리고 현재 천도교가 안고 있는 제과제를 교육사상의 당면과제들로 제시하고 있다.

천도교가 표방 추구하는 ‘人乃天’의 근본적 취지에 신앙의 대상, 목적, 방법 등이 집약되어 있음과 그것이 천도교의 神觀, 우주관, 인생관 등을 규정하며 나아가 종교합일 인류구제의 나아갈 길이 함축되어 있음을 들었다. 인간은 한울님의 이치·기운에 의해 생겨난 類型的 존재로서, 애초부터 한울님을 자신안에 모시고 생활하게 되어 있는 존재자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간은 육신의 제욕구에 사로잡혀 본래적이어야 할 한울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갖가지 죄악과 불행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인간은 스스로가 한울님을 뒤흔들고 있음을 자각하고, 天人合一에의 스스로의 향상 및 그 완성을 추구하고, 나아가서는 한울님의 나라를 실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이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말 큰사전》에 의하면 ‘인격’이란 사람의 품격, 도덕행위의 주체, 공동생활의 주체 곧 한 개인으로서 독립할 수 있는 자격으로 풀이하고 있다. ‘人乃天’의 진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자유·평등 평화사상을 깨우쳐서 인류가 한가족임을 확인해서 그 정신으로 輔國安民·布德天下·廣濟蒼生해서 지상천국 건설사업에 참여한다는 명제요 새인간 새문화 새역사 창조의 원동력을 소생시켜 모든 사람이 한울사람으로 자아를 완성하게 하는 진리임을 우리 민족 모두에 알리고자 한 종교였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따라서 천도교가 제시한 종교활동의 제 내용과 방법 절차는 대개의 부족종교·국

민 민족종교의 차원을 벗어난 고등·세계·문화 종교가 그렇듯이, 인격교육이 추구하고 구현해야 할 '원만한 인격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과 병행하고 있음은 천도교도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노교수는 인격교육의 목표에서 다섯 가지 항목에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인격교육의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근대인의 생활에 대한 종교규범의 영향력의 약화에 있으며, 심지어 종교에 대한 강한 적대감마저 보인 제이념이 세계를 지배하고자 한 것이 현대사의 한 측면이었다. 한편 종교에 대한 거부를 특정의 종교와 宗團이 생성·발전·변영했던 곧 그 시대나 사회의 중심·지배 가치체제로 기능했던 때와는 전혀 다른 사회적·문화적 환경속에서 현대의 인간이 생활하고 있음에 그 요인을 찾기도 한다. 신비의 베일에 싸인 초자연적인 위력을 보이는 대자연으로부터 격리된 사회조직과 정치 경제적 기구에 의존하는 어쩌면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물질과 기계에 의거, 그 생활이 영위되면서 그것이 행복인양 착각하는 일상속에서, 현대의 인간은 신비나 초자연에 대한 외경의 마음가짐도 나아가서는 그러한 것의 절대적으로 따르거나 감사하는 감정을 상실한다는 것도 당연한 것이며 그것이 지나치면 영적 부문과 세속적 생활의 영역을 별개의 것인양 여기게 되어 종교가 현대인의 생활에 대해 그 힘과 매력을 잃게 된 기본 요인이 된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고등종교마저 그 敎義와 교단활동의 실상이 보이는 괴리는, 종교의 인도주의적 주장과 실제 사회적 실천과의 모순, 나아가서는 종교 상호간의 대립, 그 理想이어야 할 현실의 인간으로서의 교단이나 신도의 行態가 오늘의 자라는 세대에게도 종교에의 회의와 불신을 증폭시키는 경우도 없지 않다.

종교교육의 제연구에서는 경전의 해석이나 종교철학의 강의나 교리문답에 의해 순수한 종교경험은 조성되기가 쉽지 않음을 들고 있다. 아름다움(美)은 미적 경험에 의거 스스로의 것이 되듯, 일반적으로 경험이나 실천에 터하지 않는 종교는 종교적 지식이나 종교적 감정 차원에 머물기 쉽다.

한국전래 종교적 요소와 後天開闢이라는 理想의 구현에 한국의 土種 즉 自主宗教로서 그 비중과 가능성을 지닌 천도교가 지식·감성 종교에 머물지 않은 大團圓을 열어나갈 보다 체계적이며 실천력있는 생활종교로서의 재충전을 기대해마지 않는다.